

오월정신 헌법수룩·농업·노동·복지 보듬는 정부 희망”



이재명 대통령 시민 향해 하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치고 잔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김혜경 여사. 국회사진기자단

“비수도권·중소도시 동반성장...지역소멸 대응”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중소기업계는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국경제는 0%대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중소도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업의 인공지능·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양측 역량을 결집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길 바란다.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간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804만 중소기업도 새 정부와 협력해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우리 경제가 ‘성장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방분권시대 앞당겨 균형발전 실현 꼭 바래”

정찬기 송곡대 교수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이 당선돼 마음 든든하다. 이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성군 대통령을 기대한다. 국민주권 존중 대동세상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었으면 한다. 새정부가 흐트러진 국정을 다시 바로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제일 먼저 국민주권 보장과 지방분권 실현이 절실하다. 국가·국민을 지켜 이제는 국민을 갈



라놓은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에 서둘러야 할 때다.

어떤세력도 내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감시와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경제·사회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 그동안 비상계엄이라는 구시대적 유물을 국민앞에 휘둘러버린 정권에 국민들의 고통이 컸다.

다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겨 균형발전 실현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다.

사법카르텔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정치문화시대를 열어줬으면 한다.

정직하게 탐 흘린 자가 성공하는 나라가 돼야 하며 행복한 민주국가를 위해 새정부가 국민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역사가 희망의 나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사회악을 척결해주기 바란다.

“5·18 기본사업법 제정 통해 오월유공자 예우”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새로운 민주 정부의 시작에 국민의 기대가 크다. 새 정부는 12·3 비상계엄의 역사를 기억하고 광주 대동 정신을 통해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에 한 발짝 다가서야 한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73%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를 국정 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부에 11개 권고사항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이행을 담당할 관리 부서가 부재해 책임 회피와 함께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 주제를 명확히 지정해 11개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 재산의 환수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시급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12·12 사태 관련자들을 화합 차원에서 사면했지만, 44년 후 또다시 내란이 발생한 만큼 내란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현재 국가보훈단체에 속한 유공자들이 연금을 받는 것과 달리 오월단체 유공자들은 민주유공자로 생활이 매우 열악하다. 새 정부에서는 보훈단체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5·18 기본사업법’ 제정을 통해 오월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주길 바란다.

“‘노동 존중되는 사회’ 디딤돌 놓는 정부 되길”

정찬호 광주노동권익센터장

소년공 출신 대통령과 새 정부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12·3 내란계엄 이후 대선까지 딱 반년이 흘렀다. 결코 희망을 놓지는 않았지만 내란 세력들 준동에 실로 지긋지긋한 시간이었다. 새 정부! 가야 할 바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합당한 응징부터 하고 국민통합은 그다음이다.

빛의 혁명은 낱아빠진 거문고 줄 하나 바뀔 끼우는 것이 아니다. 뿌리부터 뽑아 제거해야 한다. 새정부가 해야 할 일 또한 이미 정해져 있다. 살을 에는 한겨울부터 6개월간 광장을 가득 메웠던 민초들의 목소리 이미 외우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 중에서 비정규직과 노동취약계층목 소리는 생생절규 그 자체였다.

새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이 고용노동성 하지 않고 단식투쟁으로 목숨 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장님도 아닌데 ‘사장님!’ 소리 때려치우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접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 노동조합 했다고 하고·구속 가정파탄에 길거리로 나 있지 않고 ‘노동조합’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실현하고 안전을 지켰다고 칭송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 새정부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디딤돌을 놓는 정부가 돼주길 간곡히 바란다.

“복지·노동정책 전환 돌봄·일자리 아우르길”

김용권 사회복지법인 진산 이사장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인 만큼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국민 모두의 삶을 돌보는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가장 먼저 실현돼야 할 목록 국민주권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다. 중앙집중형 행정은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억누르고 있다. 지역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방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이 절실하다. 법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



명돼야 한다.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안정이 흔들린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권력이 국민을 섬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와 노동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이 정착돼야 한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돌봄과 일자리를 아우르는 정책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다시 국민에게 웃음을 돌려줘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고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정부.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국가의 모습이다.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www.goldclass.co.kr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